

기로에 선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자 이행보증금 분할납부 요구...시 “불가” 입장 조율 안되면 25일 협약체결 계획 무산 우려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무산과 성사의 기로에 놓였다.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이행보증금 납부방식을 두고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를 협약체

결 이후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공고했다. 이는 협약체결을 앞두고 우선협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한 것이다. 서진건설은 실시협약 체결과 동시에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비 5,600억원 가운데 토지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0%인 48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담보와 수수료(약 18억

원)를 내고 보증할 수 있다. 하지만 서진건설은 최근 수익성 강화방안으로 제출한 '지하 상업공간을 늘리는 대신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사업변경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을 3단계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법률자문을 거쳐 '공모 지침을 우선해야 한다'며 분할납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광주도시공사를 통해 서진건설 측에 전달했다. 이번 주 안으로 서진건설의 이행보증금 납부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했다. 시는 서진건설 측이 이번 주 내에 이행

보증금 납부여부를 밝혀오면 오는 25일 까지 협약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진건설 측이 이행보증금 분할 납부를 고수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로 이어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분할납부가 공모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법적 자문을 거쳐 서진건설 측에 통보했다”며 “이번 주 안에 답변이 오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시 사업예산 71% 시장공약 치중”

신수정 시의원 “시민의견 수렴해 주요 사업 선정해야”

광주시 주요 사업의 예산이 시장의 공약 사업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북구3)은 17일 시장질문에서 “27개 실·국이 114개 주요 사업에 9조3,600억원을 집행한다. 이중 이용섭 시장 공약사업은 36개 사업에 6조6,600억원으로 무려 71.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가운데 시민의 제안으로 반영된 사업은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53.5%, 협의회를 열지 않은 것도 54.4%에 달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시민대상 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64%, 홈페이지 미공개 50.9%,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50%에 이른다. 사업효과나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75.4%, 홈페이지



이제 공개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60.7%, 조례나 규정없이 추진되는 사업도 54.4%에 이른다

신 의원은 “시장은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야 하지만, 전형적인 관료행정이지 일반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00대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소통관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전체 실·국에서 소통 및 현장체험의 날 시행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김영록 지사,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면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도청 접견실에서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회장 홍치원) 회장단에 도내 관광 상품과 농수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로와 수출방안을 주제로 면담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철새 도래지 AI 차단방역 강화

전남도는 겨울철새가 날아오는 시기가 다가오고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철새 도래지 방문을 통제하고, 방역방제기 등 방역자량을 총동원해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1일까지 순천만·영암호·해남 고천암호 등 주요 철새 도래지에 제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및 방역방제기, 시·군 소속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에 나선다. /김영민 기자

전남산 가을배추 잦은 태풍에 고사 현상

해남 생산량 50% 감소 전망...지자체 대응책 고심

국내 가을배추 주요 생산지인 전남지역에 잇따른 태풍으로 고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3,000여ha다. 지난해 가격폭락을 겪으면서 재배면적이 200ha 가량 줄었다. 전남산 가을배추는 해남군이 주산지다. 도내 재배면적의 절반을 넘는 1,800ha에 가을배추를 심었다. 9월부터 시작된 3차례 태풍 내습으로 이들 해남지역 배추 재배면적의 80%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거의 모든 가을배추 밭에서 바람에 의한 뿌리 상처가 발생했고, 2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토양수분이 과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배추뿌리 기능도 상실했다. 일부 배추밭에서는 태풍 이후 강한 햇빛으로 잎 위조증상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9월에 심은 겨울배추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면적은 2,300ha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태풍 피해는 올해 11월 말이나 12월 초 수확하는 가을배추 생산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내 가을배추 생산량은 38만

1,000t이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잦은 비와 태풍으로 작황이 부진해 15~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다. 특히 태풍에 직격탄을 입은 해남지역 가을배추는 50~60% 정도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 전망도 있다. 배추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지난 16일 현재 포기당 배추가격은 4,480원인데 지난해 생산량 과다로 가격이 폭락했던 때인 1,660원과 비교하면 거의 4배 가까이 급등했다. 가을배추 생산량이 줄어 실제로 시장공급량이 감소할 경우 가격이 더욱 오를 가능성도 있다. 내년 초 수확하는 겨울배추 작황도 태풍과 습해 등으로 초기생육이 좋지 않아 가을배추 생산량과 저장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태풍피해 지역을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배추 영양제 예산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영민 기자

환경미화원 방진마스크 지원 시, 5개 자치구 877명 대상

광주시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로 가로·가정청소 환경미화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진마스크 지원은 도로변 청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의 제안을 시에서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18일 5개 자치구 877명의 환경미화원에게 방진마스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청소차(저상차) 교체,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야광 안전벨트 지원, 환경미화원 청소합 설치, 컴퓨터공간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궤도 이탈하나

▶1면에서 계속
장 의원은 노동계가 '반노동적' 현대차 추천이사 해촉, 노동이사제 도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광주형일자리'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노동이사제 문제에 대해 “지난 1월 31일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노동이사제는 지금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은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점이지 아니다. 공장을 만들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표이사 선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대표 임명을 검토해야 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 없다”며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임명된 사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측은 지난달 노동이사제 도입과 현대차 추천이사 해촉, 임원연봉 상한제 도입, 친환경·친노동 공장설립을 위한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요

구했고, 해당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불참을 선언했다. 지난 9월 노사민정협의회는 투자자간 협약과 부속협정서에서 벗어난 주장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 등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를 조건으로 법인설립이 이뤄졌다. 노사민정협의회는 GGM 노사갈등 중재·조정, 선진 임금체계 등 제도도입 지원, 협정서 이행여부 감독 등 역할을 담당하는데 노동계가 불참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연내 예정된 기술지원계약 체결 및 공장 착공은 물론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잡은 완성차 양산 등 일정 역시 지연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시장은 시장질문 답변을 통해 “지금은 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공장을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는 법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부견제 시스템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 외부(광주시)에서 감독할 수 없다”고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

7억원, 2명

- 대상 - 급매물·경매물건
- 기간 - 2년 이내
- 수익 - 연 24% 이상 가능

법적보장.010-3605-5000



Amore
단독 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웨딩



Lobby
넓은 로비, 깔끔한 인테리어로 품격있는 만남의 공간



Fedes
동 형태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웨딩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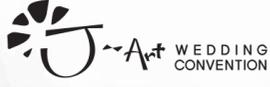
Parking
넓은 주차장 완비

제이아트웨딩컨벤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당신의 특별한날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Wedding Day

결혼식 / 피로연 / 가족행사
기업행사 / 모임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자로 269.

대표전화 062) 369-5200 / 010-4515-5203

